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꽃송이¹, 채명정^{2*}

¹광주여자대학교 강사, ²광주여자대학교 교수

Influential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Cott-song-i Park¹, Myeong-jeong Chae^{2*}

¹Lecture,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전학년 208명에게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9.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학습몰입($r=.515,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681, p<.001$), 전공만족도($r=.62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446, p<.001$), 전공만족도($\beta=.285, p<.001$), 3학년($\beta=.157, p=.001$), 학습몰입($\beta=.133, p=.018$), 2학년($\beta=.106, p=.038$) 순이며, 진로준비행동의 설명력은 57.0%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선택한 진로에 탐색을 고려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15th September 2022 to 14th October 2022, from 208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ies in provinces the G and J. And the data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as analysed based on learning flow ($r=.515, p<.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681, p<.001$) and major satisfaction ($r=.621, p<.001$).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ur wer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a=.446, p<.001$), major satisfaction ($\beta=.285, p<.001$), third grade ($\beta=.157, p=.001$), learning flow ($\beta=.133, p=.018$), and second grade ($\beta=.106, p=.038$),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57.0%.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customised education through a career programm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areer path chosen by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Learning flow,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paper summarizes Park Cott-song-i master's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Myeong-jeong Chae(woundcare92@kwu.ac.kr)

Received November 13, 2023

Revised November 28, 2023

Accepted December 20, 2023

Published December 28, 2023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변화는 구직의 어려움을 야기했고, 학생들의 전공 및 직업군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진학자는 56.0%에서 좋은 직업을 희망한다고 하였다[1]. 대학생 본인의 적성 및 흥미보다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하여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대학에 진학한 후 낯선 전공과목과 그에 관련된 지식, 가치관과 진로 관련 문제 등으로 많은 혼돈을 겪을 수 있다[2-4]. 이것은 전공과목이나 수업의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 전공만족감 저하 등을 나타내며,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함께 중도 탈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따라서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목표 달성을 성취할 때 진로준비행동이 요구되며[6], 성공한 직업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있어 직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및 탐색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학 내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7].

간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8]. 또한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9]. 간호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직장을 스스로 선택한다기보다 기관이나 병원의 설명회 또는 공지되어 있는 채용정보에 의존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한 다각적인 준비 없이 병원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막연하게 생각하던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문간호인으로서 몰입하지 못하고 직업에 적응하기 힘들다[11,12]. 그렇기때문에 간호대학생에게 부족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직업을 탐색하는 것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13].

진로준비행동과 연관성을 가진 여러 요인들 중 학습몰입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방향성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고 하였다[14]. 학습몰입이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접한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학습과정 안에 온전히 흡수되어지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말한다[15]. 학습자는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과정에 대해 보편적

으로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전공수업에 대해 집중도가 증가하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16].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간호대학생은 과도한 학습량과 함께 임상실습 및 간호사 국가고시라는 성과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받고 있어 학업 수행 및 성적향상을 위해 학습몰입 강화가 필요하다[17]. 몰입에 대한 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냈고[16], 학습몰입은 학생 스스로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면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진로에 대한 방향과 소신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영역으로 진로결정에 있어 필요한 학업들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및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19]. 이는 개인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20], 목표를 향해 몰두할 때 행동을 자신감 있게 할 가능성을 높이며, 진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힘과 노력을 다하게 한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직업을 탐색하게 되고 진로를 선택함과 적응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진로준비행동을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보고 되었으며[21-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24].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결정한 전공을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정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25],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정한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성적관리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를 결정 및 준비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다[26]. 그러나 간호학과는 직무상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진로가 확고하며, 타 전공에 비해 취업이 비교적 수월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27]. 타 학과와 비교하면 간호학과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가 보다 많고, 학습량이 막대한 반면 임상실습과 전공에 대한 이론수업 및 실습을 병행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형성된 간호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자신만의 확신이 생기면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전공 내용 전반에 대한 흥미 그리고 만족에 영향을 주며 진로준비행동의 강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29].

현재까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심리자본,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연구[18], 학습몰입[15], 전공만족도[10,30,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3,32] 등이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학습몰입,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일반대학생의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16]가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확대 진행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없으므로 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와 J도에 위치한 대

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전 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함을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7 program (Faul, Erdfelder, Buchner, Lang, 2009)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0개(일반적 특성 7개, 독립변수 3개)를 적용한 결과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20% 탈락률을 생각하여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 7건을 제외한 총 2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 및 연구 진행 상황의 윤리적 정당성 획득을 위해 자료수집 전 G대학 IRB 심의(1041465-202208-HR-001-30) 후 J도와 G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학과장님의 허가를 받고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였다. J도와 G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작성한 설문자료는 연구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 및 비밀보장과 함께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중도 포기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공지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Choi와 Kim(2012)이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토한 진로준비행동 척도[33]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 25문항으로 점수의 분포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였고,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2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Kim 등(2010)이 개발한 학습몰입 척도[34]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 29문항으로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학습몰입에 대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고,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1983)가 도구를 개발한 후 Betz & Taylor(1996)가 수정하여 Lee와 Lee(2000)가 번역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 [35]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 25 문항으로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Lee와 Lee[3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3.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2000)가 개발하여 Lee(2004)가 수정하고 Shin(2019)이 수정 보완한 도구[36]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 17문항으로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Lee(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Shin[3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Statistic Version 2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의 관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변수들 간의 차이는 독립 2표본 t-검정 (t-test)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정 Scheffe's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변수별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면, 총 208명 중 성별은 여자 187명(89.9%), 남자 21명(10.1%)였으며 학년은 학년별로 각 52명(25.0%)씩이었다. 연령은 평균 21.79세로, 23세 이상 78명(37.5%), 22세 35명(16.8%), 21세 44명(21.2%), 20세 51명(24.5%)

이었다. 휴학경험은 '유' 20명(9.6%), '무' 188명(90.4%) 이었고 종교는 '유' 67명(32.2%), '무' 141명(67.8%)이었다. 평균평점 성적은 상위 110명(52.9%), 중위 98명(47.1%)으로 분포하였으며,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높음 취업률 및 안정적인 직장'이 117명(56.3%), '본인 의지나 성적' 56명(26.9%),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 35명(16.8%) 순이었다. 졸업 후 취업희망분야의 경우 '대학병원' 150명(72.1%), '종합병원'이 31명(14.9%),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기타'가 27명(13.0%)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N=2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87	89.9
	Male	21	10.1
Grade	1st	52	25.0
	2nd	52	25.0
	3rd	52	25.0
	4th	52	25.0
Age	20.0	51	24.5
	21.0	44	21.2
	22.0	35	16.8
	≥23.0	78	37.5
	M±SD	21.79±1.43	
Leave of absence experience	Yes	20	9.6
	No	188	90.4
Religion	Yes	67	32.2
	No	141	67.8
Average grade	Top rank (3.51~≤4.5)	110	52.9
	Middle rank (2.51~≤3.5)	98	47.1
Motivation to go to college	High employment rate, Job security	117	56.3
	Willingness, Grade	56	26.9
	Parental · Around solicitation	35	16.8
The field of employment desire	University Hospitals	150	72.1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31	14.9
	A public institution, government employees, others	27	13.0

3.2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학습몰입 평균은 3.11±0.55점(5점 만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71±0.45점(5점 만점)이었고,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4.02±0.53점(5점 만점),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3.56±0.4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08)

Characteristics	M±SD	Range	Min. ~ Max.
Learning flow	3.11±0.55	1~5	1.79~4.59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71±0.45	1~5	2.12~4.92
Major satisfaction	4.02±0.53	1~5	2.41~5.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56±0.49	1~5	1.40~4.9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 학년(F=4.011, $p=.008$)과 연령(F=4.496, $p=.004$), 평균성적($t=-2.543$, $p=.006$)과 진학동기(F=9.252, $p<.001$) 그리고 취업희망분야(F=3.245, $p=.041$)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p)
Gender	Female	3.68±0.33	-1.095 (.275)
	Male	3.55±0.51	
Grade	1st ^a	3.36±0.40	4.011 (.008) a,b,c
	2nd ^b	3.63±0.49	
	3rd ^c	3.64±0.54	
	4th ^d	3.62±0.49	
Age	20.0 ^a	3.36±0.42	4.496 (.004) a<b,c,d
	21.0 ^b	3.67±0.49	
	22.0 ^c	3.66±0.45	
	≥23.0 ^d	3.60±0.52	
Leave of absence experience	Yes	3.52±0.63	-0.447 (.655)
	No	3.57±0.48	
Religion	Yes	3.55±0.50	-0.386 (.700)
	No	3.57±0.49	
Average grade	Top rank (3.51~≤4.5)	3.48±0.45	-2.543 (.006)
	Middle rank (2.51~≤3.5)	3.64±0.46	
Motivation to go to college	High employment rate, Job security ^a	3.53±0.45	9.252 (.001) a,b<c
	Willingness, Grade consideration ^b	3.36±0.57	
	Parental · Around solicitation ^c	3.78±0.46	
The field of employment desire	University Hospitals	3.58±0.46	3.245 (.041)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3.38±0.58	
	A public institution, government employees, others	3.69±0.50	

3.4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학습몰입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08$, $p<.001$)과 전공만족도($r=.495$, $p<.001$), 진로준비행동($r=.515$, $p<.001$)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579$, $p<.001$), 진로준비행동($r=.681$, $p<.001$)와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r=.621$, $p<.001$)간의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왔다(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 related variable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08)

Variable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r(p)	r(p)	r(p)
Learning flow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08*** (.001)	1		
Major satisfaction	.495*** (.001)	.579*** (.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15*** (.001)	.681*** (.001)	.621*** (.001)	1

* $p<.05$ ** $p<.01$ *** $p<.001$

3.5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학년, 평균성적, 진학동기 변수를 회귀분석에 추가하였고,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변수에 의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기본 가정과 다중공산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65이었으며, 다중공산성 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561~0.881로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1.135~1.781이며 10미만므로 다중공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446$, $p<.001$), 전공만족도

($\beta=.285, p<.001$), 3학년($\beta=.157, p=.001$), 학습몰입($\beta=.133, p=.018$), 2학년($\beta=.106, p=.038$) 순으로 설명력은 57.0%($F=55.316, p<.001$)이었다(Table 5 참고).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0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30	.193		2.232	.027
Learning flow	.112	.047	.133	2.383	.018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65	.064	.446	7.315	<.001
Major satisfaction	.246	.053	.285	4.668	<.001
2nd grade [†]	.112	.054	.106	2.087	.038
3rd grade [‡]	.167	.052	.157	3.220	.001
R ²	.580				
Adj. R ²	.570				
F(p)	55.316(p<.001)				

[†]Dummy code(ref : 1st, 3rd, 4th), [‡]Dummy code(ref : 1st, 2nd, 4th)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평균은 3.11점이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37]의 연구에서 2.99점,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38]의 연구에서 3.21점으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구대상 및 도구가 같지 않아 연구결과가 다를 수 있어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가 몰입하면 학습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도전 의식과 내적 동기를 가지게 되어 학습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38]. 학습에 대한 몰입은 학업에 자신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며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상승시킨다[39].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71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적용한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32]의 연구에서 3.56점과 Kim[23]의 연구에서 3.57점으로 본 연

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학년이 달라 연구결과가 다를 수 있어 추후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본인 스스로가 진로결정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준비행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40]. 따라서 학생들에게 진로코칭프로그램과 비슷한 교육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문제를 계획 및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41] 이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로활동을 하도록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다른 도구를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연구에서 3.094~4.02점[42,43],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Shin 등[44]의 연구에서 3.9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말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 전공과 적성이 부합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충실하게 된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전공만족도 향상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이며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1학년 보다 2학년과 3학년의 진로준비행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전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30]의 연구에서 3.59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한 Kim[23]의 연구에서는 2.70점, Yoo[32]의 연구에서 2.98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자료수집을 한 시기에 따라 여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Yang[30]과 Kim[23]의 연구는 상반기에, Yu[32]의 연구는 하반기에 이루어졌다. 간호학과 특성상 3, 4학년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전공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45], 학과 특성, 학사일정, 학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을 확대시킨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학년에 따라 점진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은 학년, 연령, 평균성적, 진학동기, 취업희망분야였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

인을 파악한 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성별, 학교 성적[32], 전공만족도[10]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이와 학년이 증가할수록 취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와 취업에 대한 열정이 향상되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보다 2, 3학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왔으나, 4학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와 Sung[40]연구에서 고학년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향상되며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6,32]에서도 3학년 보다 4학년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 차이는 Bae와 Sung[40]의 연구에 자료수집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이며, Yoo[32]의 연구에서 자료수집기간은 10월에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한 시기에 따라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있음으로 보인다. 또한 상반기보다 후반기에 4학년 학생들의 취업이 이미 결정된 경우가 많아 다른 학년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자료수집기간에 따른 반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학동기가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하는 취업 기관, 간호학과 지원동기[31] 및 목표 명확성[32]에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원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10].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일반적 특성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32].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변수가 동일한 연구[16]에서도 전공만족도,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용음악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7]에서도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이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3학년, 학습몰입, 2학년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높은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3]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높은 요인이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간호대학생에게 스스로 정한 진로에 대해 구체적 탐색 및 확신을 갖도록 하여 이후 진로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요인으로 학년, 연령, 전공만족도 등이 영향을 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10]. 이에 대해 선행연구자는 간호학생의 연령과 학년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진로준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Jang과 Mun[10]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학과 졸업 이후 자신이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의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동기별로 상담하고,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방면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전공만족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년과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두 변인 및 이와 관련된 확대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확대 표집하여 대표성을 보완시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에 대한 기초 자료로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3학년, 학습몰입, 2학년 순서대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과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구체적인 진로와 관련된 교과나 프로그램에 참여 내용을 세분화하여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790.
- [2] Y. J. Kim, H. N. Yoo & M. J. Park. (2016).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61-270. DOI : 10.5762/KAIS.2016.17.10.261
- [3] G. U. Kim. (2012).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ttributional-style and learning Adaptation Considered in Department Sele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2), 694-700. DOI : 10.5762/KAIS.2012.13.2.694
- [4] E. K. Joo & J. W. Han. (2021).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2563-2578. DOI : 10.22143/HSS21.12.1.181
- [5] J. M. Lim. (2020). Educ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3), 105-115. DOI : 10.21184/jkeia.2020.4.14.3.105
- [6] B.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7] J. I. Choi, T. Y. Han & Y. H. Lee (2014).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 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13(5), 113-126.
- [8] H. M. Park & H. S. Lee. (2015).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tress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8), 304-312. DOI : 10.5392/JKCA.2015.15.08.304
- [9] J. A. Seong, S. Y. Bang & S. I. Kim. (2012).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2(2), 29-38
- [10] T. J. Jeong & M. K. Moon.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2(4), 344-352. DOI : 10.11111/jkana.2016.22.4.344
- [11] K. A. Lee & J. H. Kim. (2015).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42-49. DOI : 10.16952/pns.2015.12.1.42
- [12] G. Y. Lee. (2012).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 [13] E. Y. Choi, M. J. Choi & S. B. Park. (2016).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334-344.
DOI : 10.5977/jkasne.2016.22.3.334
- [14] J. K. Tak & K. H. Lee. (2001). An Exploratory Study =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 Scale. *Digital Business Studies*. 1(1), 167-180.
- [15] H. J. Park. (2017).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Learning Flow. *Global Health & Nursing*. 7(2), 79-88.
- [16] Y. J. Song & G. P. Cho.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355-374.
- [17] Y. M. Kim, C. S. Shim, S. J. Kang & H. J. Shin. (2020). Influence of Nunchi and Learning Flow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445-452.
DOI : 10.17703/JCCT.2020.6.4.445
- [18] J. Kang. (2021).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2), 551-565.
- [19]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olu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20] H. S. Hyun & Y. Y. Kim. (2018).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1), 29-38.
- [21] S. B. You & H. M. Yoon. (2014).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405-421.
DOI : 10.13049/kfwa.2014.19.3.405
- [22]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23] K. H. Kim. (2018).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399-408.
DOI : 10.5392/JKCA.2018.18.03.399
- [24] J. U. Kim & H. H. Kim. (2016).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741-766.
- [25] H. S. Ha & K. H. Kim.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26] W. K. Kim & E. J. Kim.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7(2), 65-77.
- [27] K. S. Bang & J. K. Cho. (2008).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88-97. DOI : 10.5977/JKASNE.2008.14.1.088
- [28] S. Y. Cho & S. S. Lee. (2006).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n the Korean Adult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Attain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9(1), 127-140. DOI : 10.5977/jkasne.2018.24.1.29
- [29] J. S. Jung, M. J. Ju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 [30] Y. J. Yang. (2020). The effects of nursing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angneung-

- 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 [31] S. H. Han. (2018).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7), 379-389.
DOI : 10.35873/ajmahs.2018.8.7.038
- [32] H. S. Yu. (2021).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4), 1843-1854.
DOI : 10.37727/jkdas.2021.23.4.1843
- [33] Y. K. Choi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5), 2085-2097.
DOI : 10.15703/kjc.13.5.201210.2085
- [34] A. Y. Kim, H. Y. Tack & C. H. Lee. (201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1), 39-59.
- [35] K. H. Lee & H. 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36] S. H. Shin. (2019).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Master's Thesis. Dong-eui National University. Busan.
- [37] Y. S. Kim & K. S. Lee.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between grit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7(2), 144-151.
- [38] S. H. Hong. (2021).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s and Clinical competency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during Simulation Practi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741-755.
- [39] D. Y. Kim, J. S. Kim & Y. H. Park. (2023).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on the betwee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Culture & Convergence*, 45(5), 667-678.
DOI : 10.33645/cnc.2023.05.45.05.667
- [40] S. A. Bae & S. Y. Sung. (2016).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271-292.
DOI : 10.22251/jlcci.2016.16.9.271
- [41] Y. S. Seo & C. Y. Jeong. (2016). Effect of Career Coaching Program f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leadership, and Employment-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138-145.
DOI : 10.5762/KAIS.2016.17.12.138
- [42] E. J. Jo, J. H. Park & K. M. Lim. (2019).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29-337.
DOI : 10.14400/JDC.2019.17.10.329
- [43] E. J. Lee, H. J. Kim, E. B. Park, J. H. Park, M. J. Jung & J. H. Jeong. (2018).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 263-278.
- [44] S. H. Shin, J. W. Lee, J. T. Kim. & S. H. Shin. (2021). The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10), 95-107.
DOI : 10.5762/KAIS.2021.22.10.95
- [45] K. E. Lee.(2020).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3), 316-324.
DOI : 10.5953/JMJH.2020.27.3.316
- [46] M. K. Moon & S. Y. Kim. (2017).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2(2), 162-169.

DOI : 10.21032/jhis.2017.42.2.162

- [47] E. J. Yang. (2017).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Flow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4), 55-74.

박 꽃 송이(Cott-Song-I Park)

[정회원]



- 2023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23년 3월~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기본간호

• E-Mail : songi1219@naver.com

채 명 정(Myeong-Jeong Chae)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2년 3월~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 E-Mail : woundcare92@kwu.ac.kr